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20일(일) 오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제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미투 운동은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을 '미투(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누리 소통망(SNS)에 올려 공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2006년 미국의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하였고, 2017년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 및 일반인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이 움직임은 수많은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9일 헌직 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사장이었던 상사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체육계를 비롯해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연극 연출가의 성추행 사실이 누리 소통망을 통해 폭로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더불어 시인, 극작가, 배우, 정치인 등 20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금지하고 인권 보호와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 이 나라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나아가 정치 고관여층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단지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제 정치가 선거 이상의 그 무엇이 됐다는 뜻이다. 투표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투표권 행사라는 제도화된 형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양한 지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몇 년에 한번 투표장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등 대중행동을 벌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 현안에 관한

< 뒷면에 계속 >

여론을 형성하거나, 팬덤 형태로 정치인의 지지자 집단을 형성하거나,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의 노선과 지도부의 결정에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즉,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주체가 정치엘리트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의 시민들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민주적 권리 행사로서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 마이클 맨은 『민주주의의 어두운 이면』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민(民)의 통치'라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그 '민'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내용은 다원주의적 상호 인정과 이익 조정을 뜻할 수도 있고,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이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는 일군의 대중이 열렬히 정치에 관여해 영향을 미칠 때, 이 설익은 주권자 민주주의의 열정은 위험한 것이 된다. 더구나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앙상한 관념에 지배돼 일부 결집한 대중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것은 곧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라]

지방 자치는 주민 주권에 근거하여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 자치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분립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자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 자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주민 자치도 지역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는 주민이 자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면서 주민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바]

갓 태어난 쌍둥이가 죽었다. 산부인과에 하나뿐인 인큐베이터는 백인 전용이었고, 아기들의 피부는 검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는 백인과 구분 짓기 위한 흑인 전용 대학이 있었고, 강도 사건 때마다 흑인들이 용의자로 몰렸다. 길거리에 널린 백인 전용 의자에 흑인이 앉으면 곧바로 철장에 가뒀다. 저항 운동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백인 교수인 하워드 진이 학생들에게 '앉아 있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전용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방식의 '비폭력 저항'이었다. 진은 학생들에게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은 없다.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이다."라고 가르쳤다. 진은 흑인들과 함께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함으로써 '보편적 자유'의 증진에 기여했다.

[사]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촌 문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가지려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밝은 미래 지구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다음 면에 계속 >

[아]

행정이 공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전문직업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로서 관료는 시민자질(civic capital)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자질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그리고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능력을 말한다. 관료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 공유함으로써 시민자질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 시민을 공익 결정에서 실제적 지혜를 제공하고 통치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적극적 시민성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에 적극적 시민성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민의 인간적 특성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정열적이고 이기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적극적 시민성을 모든 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도시국가(polis)의 행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플라톤의 주장에서 유래한다. 행정에 의한 편익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을 관료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초월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플라톤이 그리는 관료상은 진리에 대해 우월한 지식을 소유한 슈퍼 시민이었다.

[자]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 시민의 유효서명을 취득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가 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사명 의식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2009년 진보성향의 사회당이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유효서명을 받았었고, 이것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는 4주인데 6주로 늘리는 것은 너무 길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 이후 의회에서도 찬성률이 낮았다. 반대 122표, 찬성 61표가 나왔다. 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민위원회에서는 반대 10표, 찬성 32표가 나왔다. 국론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지연되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유급휴가를 늘리겠다는 이 안은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투표한 사람들 중 66%가 반대했다. 그리고 모든 칸톤(자치주)에서 기각됐다. 긴 휴가를 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미 법으로 규정된 휴가가 4주나 된다. 게다가 스위스는 임금 수준도 높다. 따라서 '임금을 높게 받으면서 6주나 되는 휴가를 간다는 것은 솔직히 도둑놈 심보다.'라는 공감대가 있어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정부와 의회의 입장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일치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된 사례였다.

[문제 1]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25점]

[문제 2]

[문제 1]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3]

국가 A에서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 ① 선거참여율 x 에 따른 행복 지수 y 는 $y = -5x^2 + ax + b$ 라는 이차함수의 형태를 따른다.
- ② 선거참여율의 범위는 $0 \leq x \leq 1$ 이다.
- ③ 행복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값이 클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아무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행복 지수는 $\frac{3}{5}$ 이고, 모두 선거에 참여했을 때 행복 지수는 $\frac{18}{5}$ 이다.

- (1) a 와 b 값을 구하고,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y 절편과 $x=1$ 에서의 점의 좌표(x, y)를 표시하시오.
 - (2) 행복 지수가 최대가 되는 선거참여율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행복 지수 값을 구한 후 (1)에서 그린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x, y)를 표시하시오.
 - (3) (1)과 (2)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나]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I)문항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미투 운동은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을 ‘미투(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누리 소통망(SNS)에 올려 공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2006년 미국의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하였고, 2017년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 및 일반인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이 움직임은 수많은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9일 현직 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사장이었던 상사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체육계를 비롯해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연극 연출가의 성추행 사실이 누리 소통망을 통해 폭로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더불어 시인, 극작가, 배우, 정치인 등 20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금지하고 인권 보호와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 이 나라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나아가 정치 고관여층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단지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제 정치가 선거 이상의 그 무엇이 됐다는 뜻이다. 투표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투표권 행사라는 제도화된 형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양한 지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투표장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등 대중행동을 벌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팬덤 형태로 정치인의 지지자 집단을 형성하거나,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의 노선과 지도부의 결정에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즉,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주체가 정치엘리트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의 시민들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민주적 권리 행사로서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 마이클 맨은 『민주주의의 어두운 이면』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민(民)의 통치’라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그 ‘민’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다원주의적 상호 인정과 이익 조정을 뜻할 수도 있고,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이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는 일군의 대중이 열렬히 정치에 관여해 영향을 미칠 때, 이 설익은 주권자 민주주의의 열정은 위험한 것이 된다. 더구나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양상한 관념에 지배돼 일부 결집한 대중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것은 곧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라]

지방 자치는 주민 주권에 근거하여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 자치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분립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자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 자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주민 자치도 지역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는 주민이 자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면서 주민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바]

갓 태어난 쌍둥이가 죽었다. 산부인과에 하나뿐인 인큐베이터는 백인 전용이었고, 아기들의 피부는 검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는 백인과 구분 짓기 위한 흑인 전용 대학이 있었고, 강도 사건 때마다 흑인들이 용의자로 몰렸다. 길 거리에 널린 백인 전용 의자에 흑인이 앉으면 곧바로 철장에 가뒀다. 저항 운동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했다. 백인 교수인 하워드 진이 학생들에게 ‘앉아 있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전용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방식의 ‘비폭력 저항’이었다. 진은 학생들에게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은 없다.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이다.”라고 가르쳤다. 진은 흑인들과 함께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함으로써 ‘보편적 자유’의 증진에 기여했다.

[사]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촌 문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가지려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밝은 미래 지구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

행정이 공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전문직업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로서 관료는 시민자질(civic capital)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자질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그리고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능력을 말한다. 관료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 공유함으로써 시민자질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 시민을 공익 결정에서 실제적 지혜를 제공하고 통치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적극적 시민성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에 적극적 시민성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민의 인간적 특성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정열적이고 이기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적극적 시민성을 모든 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도시국가(polis)의 행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플라톤의 주장에서 유래한다. 행정에 의한 편익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을 관료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초월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플라톤이 그리는 관료상은 진리에 대해 우월한 지식을 소유한 슈퍼시민이었다.

[자]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 시민의 유효서명을 취득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가 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사명 의식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2009년 진보성향의 사회당이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유효서명을 받았었고, 이것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는 4주인데 6주로 늘리는 것은 너무 길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 이후 의회에서도 찬성률이 낮았다. 반대 122표, 찬성 61표가 나왔다. 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민위원회에서는 반대 10표, 찬성 32표가 나왔다. 국론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지연되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유급휴가를 늘리겠다는 이 안은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투표한 사람들 중 66%가 반대했다. 그리고 모든 칸톤(자치주)에서 기각됐다. 긴 휴가를 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미 법으로 규정된 휴가가 4주나 된다. 게다가 스위스는 임금 수준도 높다. 따라서 '임금을 높게 받으면서 6주나 되는 휴가를 간다는 것은 솔직히 도둑놈 심보다.'라는 공감대가 있어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정부와 의회의 입장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일치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된 사례였다.

[논제 1]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25점]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관점이고 [나],[다]는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계열 교과과정에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와 윤리',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참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사회사상' 등을 다루는 단원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비슷한 수준의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논제 3>의 경우도,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와 이차함수의 최댓값 결정 능력을 갖추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 1]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점은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응시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주어진 분량에 맞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 (501~600자)

-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가~바]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다루고 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나],[다]는 시민 참여의 부정적 결과를 묘사한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 [라], [마],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 [다]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제시문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한국사	최병택 외	천재교육	2021	288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양근 외	천재교과서	2018	65-66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양근 외	천재교과서	2018	9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1	108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	2017	284	제시문 [사]	○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조일수	한국교육논총	2020	23-50	제시문 [나]	○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	신진옥, 이세영	한겨레21	2022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77.html	제시문 [다]	○
시민참여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한세억, 주선옥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437-438	제시문 [아]	○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는 수 백년 걸쳐 진화해온 체계다	리누스 폰 카스텔 무스	『월간 주민자치』	2020	56	제시문 [자]	○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

[가]~[바]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다루고 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나],[다]는 시민 참여의 부정적 결과를 묘사한다.

[가]는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SNS에 '미투'라는 해시태그(#)로 공유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성평등 실현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지방 자치가 민주 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풀뿌리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마]는 비록 '나 하나'는 미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참여함으로써 온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역설한다. [바]는 백인 전용 의자에 흑인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비폭력 저항 방식으로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이 보편적 자유 증진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에 [나]는 수준 낮은 정치 참여와 과도한 시민 참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다]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치팬덤 현상으로 변질되면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67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II)문항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미투 운동은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을 ‘미투(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누리 소통망(SNS)에 올려 공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2006년 미국의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하였고, 2017년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 및 일반인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이 움직임은 수많은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9일 현직 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사장이었던 상사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체육계를 비롯해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연극 연출가의 성추행 사실이 누리 소통망을 통해 폭로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더불어 시인, 극작가, 배우, 정치인 등 20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금지하고 인권 보호와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 이 나라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나아가 정치 고관여층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단지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제 정치가 선거 이상의 그 무엇이 됐다는 뜻이다. 투표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투표권 행사라는 제도화된 형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양한 지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투표장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등 대중행동을 벌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팬덤 형태로 정치인의 지지자 집단을 형성하거나,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의 노선과 지도부의 결정에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즉,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주체가 정치엘리트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의 시민들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민주적 권리 행사로서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 마이클 맨은 『민주주의의 어두운 이면』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민(民)의 통치’라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그 ‘민’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다원주의적 상호 인정과 이익 조정을 뜻할 수도 있고,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이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는 일군의 대중이 열렬히 정치에 관여해 영향을 미칠 때, 이 설익은 주권자 민주주의의 열정은 위험한 것이 된다. 더구나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양상한 관념에 지배돼 일부 결집한 대중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것은 곧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라]

지방 자치는 주민 주권에 근거하여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 자치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분립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자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 자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주민 자치도 지역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는 주민이 자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면서 주민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바]

갓 태어난 쌍둥이가 죽었다. 산부인과에 하나뿐인 인큐베이터는 백인 전용이었고, 아기들의 피부는 검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는 백인과 구분 짓기 위한 흑인 전용 대학이 있었고, 강도 사건 때마다 흑인들이 용의자로 몰렸다. 길 거리에 널린 백인 전용 의자에 흑인이 앉으면 곧바로 철장에 가뒀다. 저항 운동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했다. 백인 교수인 하워드 진이 학생들에게 ‘앉아 있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전용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방식의 ‘비폭력 저항’이었다. 진은 학생들에게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은 없다.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이다.”라고 가르쳤다. 진은 흑인들과 함께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함으로써 ‘보편적 자유’의 증진에 기여했다.

[사]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촌 문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가지려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밝은 미래 지구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

행정이 공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전문직업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로서 관료는 시민자질(civic capital)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자질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그리고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능력을 말한다. 관료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 공유함으로써 시민자질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 시민을 공익 결정에서 실제적 지혜를 제공하고 통치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적극적 시민성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에 적극적 시민성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민의 인간적 특성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정열적이고 이기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적극적 시민성을 모든 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도시국가(polis)의 행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플라톤의 주장에서 유래한다. 행정에 의한 편익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을 관료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초월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플라톤이 그리는 관료상은 진리에 대해 우월한 지식을 소유한 슈퍼시민이었다.

[자]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 시민의 유효서명을 취득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가 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사명 의식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2009년 진보성향의 사회당이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유효서명을 받았었고, 이것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는 4주인데 6주로 늘리는 것은 너무 길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 이후 의회에서도 찬성률이 낮았다. 반대 122표, 찬성 61표가 나왔다. 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민위원회에서는 반대 10표, 찬성 32표가 나왔다. 국론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지연되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유급휴가를 늘리겠다는 이 안은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투표한 사람들 중 66%가 반대했다. 그리고 모든 칸톤(자치주)에서 기각됐다. 긴 휴가를 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미 법으로 규정된 휴가가 4주나 된다. 게다가 스위스는 임금 수준도 높다. 따라서 '임금을 높게 받으면서 6주나 되는 휴가를 간다는 것은 솔직히 도둑놈 심보다.'라는 공감대가 있어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정부와 의회의 입장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일치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된 사례였다.

[논제 II]

[논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관점이고 [나],[다]는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계열 교과과정에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와 윤리',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참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사회사상' 등을 다루는 단원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비슷한 수준의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논제 3>의 경우도,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와 이차함수의 최댓값 결정 능력을 갖추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II]는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 중에서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를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 [아][자]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 [사]의 경우,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라],[마],[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제시문 [아]의 경우,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경영에 다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나],[다]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 투표로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한마음이 된 시민 참여의 사례로 [가],[라],[마],[바]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었으나 결국 원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나],[다]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문제 II> (601~700자)

-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 [라], [마], [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여러 사회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 주민 자치의 실현, 보편적 자유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 등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나], [다]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시민 참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과도하거나 배타적인 이념에 근거한 시민 참여는 의사 결정의 지연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지구촌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나 시간 및 노력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경영에 다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민 참여의 문제를 지적하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 투표로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한마음이 된 긍정적 시민 참여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한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었으나 결국 원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한국사	최병택 외	천재교육	2021	288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양근 외	천재교과서	2018	65-66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양근 외	천재교과서	2018	9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1	108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	2017	284	제시문 [사]	○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조일수	한국교육논총	2020	23-50	제시문 [나]	○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	신진욱, 이세영	한겨레21	2022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77.html	제시문 [다]	○
	시민참여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한세억, 주선옥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437-438	제시문 [아]	○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는 수 백년 걸쳐 진화해온 체계다	리누스 폰 카스텔 무스	『일간 주민자치』	2020	56	제시문 [자]	○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I]

(1) [가],[라],[마],[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역할에 관한 두 관점 중 나는 [가],[라],[마],[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여러 사회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 주민 자치의 실현, 보편적 자유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 등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지구촌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경영에 다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 투표로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한마음이 된 긍정적 시민 참여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631자]

(2) [나],[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역할에 관한 두 관점 중 나는 [나],[다]의 관점을 지지한다. 시민 참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과도하거나 배타적인 이념에 근거한 시민 참여는 의사 결정의 지연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나 시간 및 노력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민 참여의 문제를 지적하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한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었으나 결국 원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692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Ⅲ)문항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제 Ⅲ]

국가 A에서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 ① 선거참여율 x 에 따른 행복 지수 y 는 $y = -5x^2 + ax + b$ 라는 이차함수의 형태를 따른다.
- ② 선거참여율의 범위는 $0 \leq x \leq 1$ 이다.
- ③ 행복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값이 클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아무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행복 지수는 $\frac{3}{5}$ 이고, 모두 선거에 참여했을 때 행복 지수는 $\frac{18}{5}$ 이다.

- (1) a 와 b 값을 구하고,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y 절편과 $x = 1$ 에서의 점의 좌표(x, y)를 표시하시오.
- (2) 행복 지수가 최대가 되는 선거참여율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행복 지수 값을 구한 후 (1)에서 그린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x, y)를 표시하시오.
- (3) (1)과 (2)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나]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관점이고 [나],[다]는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계열 교과과정에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와 윤리’,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참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사회사상’ 등을 다루는 단원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제시문과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비슷한 수준의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문제 3>의 경우도,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와 이차함수의 최댓값 결정 능력을 갖추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III>에서는 주어진 두 점을 이용하여 a 와 b 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든 후 이들의 해를 구하여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에 관한 함수를 구하고 이를 x 와 y 의 그래프에 나타내는 능력을 검정하고 있다. 그리고 x 를 제곱식으로 표현하여 y 가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한 후 이 점이 x 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점이 y 의 최댓값임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 구간에서는 값이 증가하면서 y 값이 증가하지만, 오른쪽 구간에서는 값이 증가하면서 y 값이 감소함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의 관계는, 과도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나]의 지문에 부합하는 관찰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문제 III>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작성)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문제 I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주어진 두 점을 이용하여 a 와 b 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해당 값들을 구하면 10점 가점

② x 와 y 의 그래프를 그리되, x 의 구간을 0과 1까지 표시하고, 특정 점까지 y 가 증가하다 그 점부터 y 가 감소하는 형태로 표시하고, 0점, y 절편($0, \frac{3}{5}$), ($1, \frac{18}{5}$) 점을 표시하면 가점 10점

③ y 를 x 에 관한 제곱식으로 표현한 후 제곱식이 0이 되는 지점에서의 y 값을 구하면 x 가 $\frac{4}{5}$ 일 때 y 가 $\frac{19}{5}$ 의 값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8점 가점. 이 점을 위에서 그린 그래프에 나타내고 좌표를 표시하면 2점 가점

④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참여율이 $\frac{4}{5}$ 의 값을 가질 때까지는 선거참여율이 오를수록 행복 지수가 상승하지

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참여율이 오를수록 행복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이러한 사례는 과도한 선거 참여율로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나]의 핵심 주장에 부합한다는 것을 논의하면 10점 가점

<제시문 출처>

교과서 외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조일수	한국교육논총	2020	23-50	제시문 [나]	○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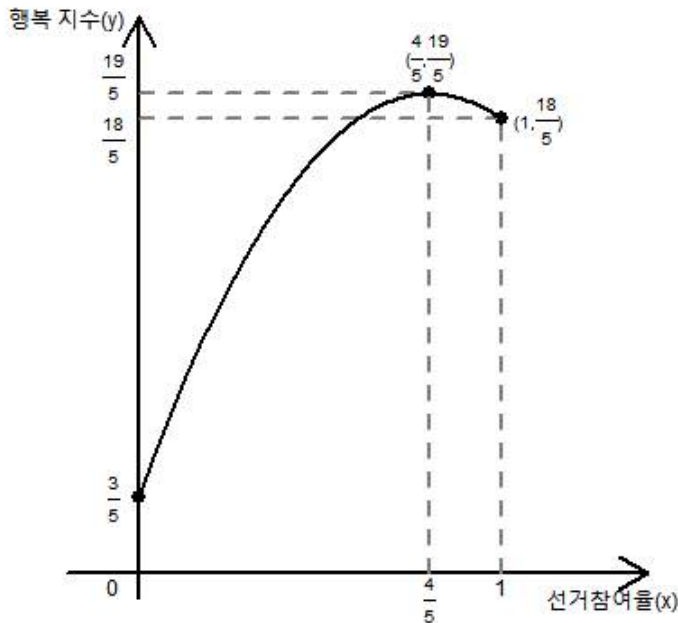
(1) 주어진 이차함수 $y = -5x^2 + ax + b$ 가 두 점 $(0, \frac{3}{5})$ 과 $(1, \frac{18}{5})$ 을 지나므로 이 점을 이차함수에 대입한, 다음의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 a 와 b 값을 구한다.

$$\textcircled{1} \quad \frac{3}{5} = -5 \times 0^2 + a \times 0 + b$$

$$\textcircled{2} \quad \frac{18}{5} = -5 \times 1^2 + a \times 1 + b$$

①에 의해 $b = \frac{3}{5}$ 이고, 이를 ②에 대입하여 a 에 대해 정리하면, $a = 8$ 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한 함수는

$y = -5x^2 + 8x + \frac{3}{5}$ 이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2) **답안 가)** $y = -5x^2 + 8x + \frac{3}{5} = -5(x^2 - \frac{8}{5}x + \frac{16}{25}) + 5 \times \frac{16}{25} + \frac{3}{5} = -5(x - \frac{4}{5})^2 + \frac{19}{5}$

선거참여율 $\frac{4}{5}$ 는 $0 \leq x \leq 1$ 범위 내에 있으므로, 행복 지수는 선거참여율이 $\frac{4}{5}$ 일 때 $\frac{19}{5}$ 를 최댓값으로 갖는다. 위의 그래프에 이 점 $(\frac{4}{5}, \frac{19}{5})$ 을 제시하였다.

답안 나) 미분을 이용한 답안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함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이고 이를 x 에 대해 미분하면, $0 = -10x + 8$ 이므로 $x = \frac{4}{5}$ 에서 최댓값을 갖는다. 선거참여율 $\frac{4}{5}$ 는 $0 \leq x \leq 1$ 범위 내에 있으므로, 행복 지수는 선거참여율이 $\frac{4}{5}$ 일 때 $\frac{19}{5}$ 를 최댓값으로 갖는다. 위의 그래프에 이 점 $(\frac{4}{5}, \frac{19}{5})$ 을 제시하였다.

(3) 국가 A의 사례는 선거참여율이 $\frac{4}{5}$ 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증가하면서 행복 지수가 증가하지만, 선거참여율이 $\frac{4}{5}$ 보다 큰 구간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증가할수록 행복 지수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과도한 정치 참여가 국민의 행복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 지문을 지지하는 사례이다.